“낡은 규제에 신산업·창업·투자 막혀”… 합리화 30선 건의

中企업계, 민관 추진단에 과제 전달
완화·명확화·강화 과제 등 포함
노후산단 업종확대·샌드박스 개선
여성CEO 지원·벤처투자 규제 완화
金 “수요자 관점서 적극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방안 마련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여성CEO의 출산육아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RWA 규제 완화 ▲의료기기 품목 정의 개정을 통한 수출 규제 애로 해소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건설근로자 현장보행 및 작업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 30선’에는 완화 과제 21개, 명확화 과제 5개, 강화 과제 4개가 포함돼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10~20년전 수립했던 업종계획을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신산업 수요와 업종 간 융복합화 트렌드, 지역 전략산업 변화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정기적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 또는 업종특례구역으로의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 소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창업·도약·재도전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과 투자는 ‘창업 7년 미만’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20~30대 창업 여성기업 대표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와 창업 3~7년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 강제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미만 기준을 혼인·출산·육아 시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크면 BIS 비율 등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커 벤처펀드 출자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 선진 금융시장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분야에서 작업자의 현장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전자나 철도관제종사자처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뷰티가 밀었다… 中企 수출 298억달러 ‘역대 최대’

중기부, ‘1분기 중기 수출 동향’
전년比 9.1% 늘며 최고 실적
화장품 21.8억달러 수출 신기록
온라인 수출도 첫 3억달러 돌파

중소기업 수출이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두 자릿수 이상 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미국은 8분기 연속으로 화장품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98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1% 늘어나며 잠정치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는 수출에 악영향을 줬다. 3월만 놓고보면 중동 전쟁 발발로 중동 수출액이 2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49.5%나 빠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가 20.7% 늘어난 66억6000만 달러, 미국 등 북미가 4.5% 증가한 18억6000만 달러 등을 기록하며 중동 수출 하락을 상쇄했다.

온라인 수출도 미국, 중국, 영국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분기 기준 최초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기업 숫자도 2193개(2024년 1분기)→2390개(2025년 1분기)→2735개(2026년 1분기)로 점점 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이 주도했다. 21억8000만 달러로 무려 21.3%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고 수출 실적을 거뒀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3분기(21억7000만 달러)였다.

화장품 권역별 수출액은 아시아 10억4000만 달러, 유럽 5억 달러, 북미 4억6000만 달러, 중동 8000만 달러 등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은 K-뷰티 현지화 마케팅 효과로 온라인 플랫폼 내 수요 증가, 북미 유통망 확대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8분기 연속으로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라며 “유럽도 브랜드사의 현지 법인 설립, 자사몰 강화 등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두 자릿 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기업수 역시 6276개사로 전년(5740개)보다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74.2% 증가한 2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영국(282%), 중국(91%), 미국(6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5.6% 늘어난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고성능 통신장비,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이 홍콩(214.8%), 베트남(35.4%), 대만(82.5%)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승호 기자

中企 중동전쟁·AX 애로 해소 나선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추가 지원 모색에 나섰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29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케이엠에프 사업장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 AX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강 이사장 외에도 이정구 (사)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사 등 8개사가 참석했다.

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는 수출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한 협의체로, 최근 급변하는 환경과 위기 대응을 위해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X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중동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 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첫 포상금 지급

소진공, 신고 3건 수사의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색출 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3건을 수사 의뢰하고 신고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특정 기간 내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과 공단이라고 속이면서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점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소진공은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쳤고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참여 공공기관 중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김승호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모델솔루션’

아트센터 협업성과 공개

제품급 프로토타입 완성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 모델솔루션이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제품 디자인 구현 역량을 선보였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 수준의 프로토타입으로 완성하며 초기 콘셉트를 설계·엔지니어링·제조 단계로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을 구체화했다.

모델솔루션은 미국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ArtCenter College of Design)과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트센터 제품디자인과의 올해 봄 학기 정규 수업 ‘3D 모델링 3’ 과정과 연계해 진행됐다. 아트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산업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모빌리티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델솔루션은 CAD 기반 설계 검토, CMF 구현, DFM 기반 제조 검토 등을 지원하며 디자인 콘셉트가 제품화 단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업했다.

최종 결과물로는 휴대용 DJ 컨트롤러 ‘DJ Deck’, 자율주행 기반 미래형 쇼핑 카트 ‘Grocery Cart’,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전기 자전거 ‘E-Bike’가 선정됐다.

/원관희 기자 wkh@

공영홈쇼핑

TV홈쇼핑 입점기회 제공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

정부 판로지원 수행기관 선정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과 ‘2026년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35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TV홈쇼핑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제품은 스테디셀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5개사의 상품을 방송하고 43억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10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한정된 인력과 재고부담 등으로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생방송 2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획전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판매 촉진을 도울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